

Best Learner에게 듣는 학습 전략 노하우 3 - 보고서 작성법 -

1. 이공계 실험 보고서 공략법

최 주 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학부생

이공계 학생이라면 누구나 실험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과목의 특성에 따라 보고서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고서의 점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핵심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 공략법을 살펴봅시다.

1. 주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고서 작성자가 보고서의 내용, 즉 실험의 원리와 결과를 제대로 이해했는가입니다. 실험의 원리와 결과는 보고서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색소의 분리와 흡광 분석>이 보고서의 주제라면, 색소를 분리하는 원리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흡광도 측정은 왜 하고 그 원리와 의미는 무엇인가가 핵심 내용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보고서라면 속이 빈 것과 같습니다.

2. 이공계 실험 보고서는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에서 차별화를 하자

일반적으로 이공계 실험 보고서는 Abstract, Introduction, Data & Result, Discussion, Reference의 순서입니다. Abstract는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이고, Introduction은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실험 보고서에서는 주로 자연 원리나 기계의 작동 원리, 시료의 특성, 기존 연구 사례 등을 많

이 다릅니다. Data & Result는 실제 실험실에서 수행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Discussion은 본인이 수행한 실험의 Data & Result를 통해 자신만의 결과를 논하는 부분입니다. 즉 Discussion은 보고서 작성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부분으로써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주관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자 개개인에 따라 가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Reference는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본인이 참고했던 자료들(인터넷 자료, 단행본, 논문, 영상자료 등)을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3. 점수는 고찰 부분에서 나뉜다! 수많은 수강생 중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내용을 쓰자

- 오차 최소화 방법 고안하기, 새로운 실험/기계 설계 등

앞서 설명했듯이 Discussion은 다른 수강생과 나의 보고서를 차별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어떤 조교들은 Discussion만 읽고 보고서를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Discussion은 보고서의 점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부분에 오차가 왜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을 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새로 고안하거나, 같은 원리를 이용하거나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실험 방법 또는 기계를 설계해 보는 것으로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실험 결과가 나뉠수록 더 높은 보고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실험 결과가 나뉠수록 고찰 부분에서 더 깊이 있게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집니다. 실험을 망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를 기회로 이용합시다.

5. 참고문헌 작성법을 반드시 숙지하라

참고문헌 작성법은 대학국어 강좌에서 배우지만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각 분야 별로 사용하는 참고문헌 작성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II. 인문사회계 보고서 공략법

핵심교양, 일반교양, 전공 등 많은 과목들이 보고서를 평가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글쓰기나 학문의 기초 과목이 아닌 이상 보고서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독특한 주제,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자

흔한 주제 또는 소재에서 주목할만한 결과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독특하고 참신한 주제가 좋은 보고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때 나만의 키워드를 만든다면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본인의 꿈 또는 목표, 전공, 관심 분야 등은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어렵거나 수준 높은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내가 잘 할 수 있거나 내가 흥미로운 주제를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주제는 최대한 구체적·세부적으로 정한다. 주제가 모호할수록 내 주장을 펼치기 어렵다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분야별, 시대별 범주를 세분화한 주제를 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를 보고서의 주제(또는 소재)로 하는 것보다 개별 국가 또는 문화권으로 세분화하여 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3. '창의성'이 핵심이다!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다

보고서의 기본 틀은 서론-본론-결론이어야 하지만, 그 세부적인 형식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내용 분할이나 본론의 제목 등에서 신선한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술 방식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글쓰기 스타일에 따라 내용을 유기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범주화 또는 도표·도식화 등의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범주화 또는 도표·도식화의 방식을 쓴다면 보고서 내용을 가시화시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4. 보고서 구성에 3일 이상을 투자하라

시험은 벼락치기가 가능하지만 보고서는 벼락치기로 나올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 맵 그리기는 최소한 3일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거나 인터넷에서 최신 논문들을 검색하면서 보고서를 구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학술지 사이트나 국내의 KISS, RISS,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등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나만의 논리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라

학부생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여러 도전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부담감 없이 본인만의 논리를 새로운 용어 또는 이론으로 표현해보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탄탄한 근거와 논리적인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종교 현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 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새로운 종교론을 창조해보거나, 동물 권익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시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6. 주석달기와 인용문 작성은 반드시 규칙을 따르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각 분야별로 사용하는 참고문헌 작성법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닌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합니다. 또한 표절은 절대 금물입니다. 직접 인용을 할 때에는 “ ” 안에 인용문을 써야 하고, 간접 인용을 할 때에도 각주를 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보고서의 유사성 여부를 스캔하여 퍼센트로 나타내주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보고서 작성 규칙을 준수하여 표절로부터 자유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길 바랍니다.